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경제구조분석 및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n Objective Evaluation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Household Economic Structure for Commuting and Non-Commuting Couples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부교수 허 경 옥**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uh, Kyung-O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bjective indicators of househol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income, expenditure, and debts, as well as a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standards, and compared the households of commuting couples (so called Weekend couples) with those of non-commuting couple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husbands and wives in commuter marriages ha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were younger, had poorer health, and had shorter working hours than the couples in non-commuter marriages. Second, commuting couples had a significantly higher income than non-commuting couples. In addition, commuting couples had a greater amount of savings, had a higher cost of living, and lower debts than non-commuting couples. Third, commuting couples evaluated their status of household economy more negatively than non-commuting couples. Despite the fact that the commuting couples were more affluent in terms of the objective indicators, including income, savings, and assets, their level of health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compromised. Lastly, factors determining commuter marriages were the number of years the husband has spent in his job, and the husband's level of education. The shorter the tenure of the husband's job, and the higher the level of husband's education, the more likely the couple was in a commuter marriage.

▲ 주요어(key words): 주말부부(weekend couple), 객관적 경제수준(objective economic level), 주관적 경제수준(subjective economic level),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

1. 서 론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가속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의 여부가 가족형태를 구별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떨어져 사는 이산가정이나 주말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족형태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져가고 있다(김성철, 2001). 특히 자녀교육, 직장, 여성취업 증

가로 인한 주말부부 가계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나 홀로 족', '기러기 아빠'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에 대한 일종의 '대안 가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공동체가족, 다세대 가족, 안식년 가족, 이중핵가족, 동거가족 등이 출현하고 있다(동아일보, 1997년 5월 19일). 마음에 맞는 가족들끼리 한 지붕에서 사는 다세대 가족, 가족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예기간을 갖는 안식년 가족, 하나의 핵가족이 제한된 기간동안 두 핵가족을 이루는 경우, 예를 들면, 서울에서 아빠와 중학생 아들이 부산에서 엄마와 초등학교 딸이 사는 이중핵가족, 법적 미혼모 가족인 동거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하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허경옥 (E-mail: kohuh@cc.sungshin.ac.kr)

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말부부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학문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의 삶의 애환, 외로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조선일보, 2002년 4월 29일). 또한, 주말부부 가족형태는 노인문제까지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2002년 4월 29일). 주말 부부가게가 증가하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주말부부 사이트가 등장하여 여러 애로사항 등을 서로 토로하기도 하고 있다. 주말부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부교사 중 한쪽이 다른 시도에서 근무중인 주말부부 교사들의 경우 서울로 전입하게 해 주는 등 주말부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취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6년 11월 19일; 한국일보, 2000년 3월 20일).

주말부부 가계가 발생하는 1차 요인은 경제적 이유이다(Kim, 2001). 여성취업의 증가, 남편의 직장 소재지 이동, 자녀 교육 등이 주말부부가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취업은 주말부부 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역으로 남편 또는 부인의 전근이나 직장 소재지의 변동은 여성이 직업을 그만 두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성 또한 주말부부 가계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자녀의 도시로의 유학이나 해외 유학으로 인한 이산 가족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의 권리신장에 따라 남성 중심의 가족형태로부터 변화 모색 경향도 주말부부가 증가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주말부부 가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자아충족감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장되고 있으며, 교통편의가 더욱 좋아지면서 주말부부 가계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주말부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작 우리 주변에서 주말부부 가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말부부 가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한국일보, 2000년 3월 20일). 주말부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편 되지 않는 상황인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주말부부의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망, 아동의 적응 연구 등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존재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주말부부 가계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 가계에 대한 가계경제 및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는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주말부부 가계는 어떤 특성을 가진 가계인지, 주말부부 가계가 비주말부부 가계와 비교할 때 소득, 가계소비지출, 저축, 경제적 안정도 등 가계경제 구조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교통비, 주거비 등에서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지이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IMF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할 때 교통비 부담 때문에 주말부부에서 월말 부부로 만남의 회수를 줄였다는 신문기사는 주말부부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준다(동아일보, 1998년 3월 16일). 또한, 최근 기러기 아빠가 증가하면서 기업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회식 및 애로사항을 듣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기러기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피스텔, 식당, 세탁, 파출부 사업이 성황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02년 9월 16일).

그러나, 지금까지의 뉴스나 보도들은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말부부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 및 비교연구를 토대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적 실태를 파악하고 비주말부부 가계와의 비교하는 기초조사 및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두 가계 간의 가계경제구조 상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주말부부 가계의 상대적인 문제점이나 혜택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득구조, 가계부채 및 지출, 재정적 상황, 주관적 복지수준, 직업만족도 및 삶 만족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들이 주말부부 가계인가 비주말부부 가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또한, 조사대상 가계가 주말부부가계에 속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본 연구는 주말 부부가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말부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전국적 자료를 사용하여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본 연구는 주말부부 가계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됨은 물론이다. 또한,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구조 등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부부 중 하나가 전근되었을 때,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취업 결정 등 주말부부 가계가 될 것 인지와 관련한 가계의 의사결정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주말부부 가계가 될 경우 소득 상의 이익이 있는지, 지출상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직업 관련, 의사결정이나 주말부부 형성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주말부부와 관련한 가족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기타 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별거 부부교사들을 위한 특별전보를 실시해 근무지를 바꾸어 주는 등 주말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는 정책을 펼친 바 있는데, 앞으로 주말부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주말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이외에도 본 연구를 응용하여 주말 부부 가계의 정서적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 측면의 지원정책을 펼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말부부 가계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를 기초로 주말부부들의 어려움이나 실상을 반영하는 각종 마케팅이나 고객센터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주말부부 관련 기업 마케팅이 선 보인다. 이동통신 업체에서 주말부부 등이 많이 사용하는 통화요금에 패밀리 요금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그것이다. 게다가, 본 연구를 토대로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연구하여 기업의 인력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II. 국내외 연구동향

주말부부가 생성되는 일차적 이유가 배우자의 직업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에도 이들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조사가 실행되지 않아 주말부부와 관련한 가계경제학적 접근과 관련한 연구는 시급한 시점이다.

주말부부에 대한 가계경제학적 접근은 아니나 최근 인류학자 김성철(2001)은 전문직 주말부부 가족(weekend-couple family)의 실태를 담은 '한국 전문직 사회의 주말부부'라는 논문을 유네스코가 발행하는 유명 영문학술지인 Korea Journal 에 게재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주말부부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는 23팀의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심층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말부부가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조사대상은 주로 지방 소재 대학교수, 고급 공무원, 중상급 기업 관리자, 대덕 단지 연구원 등이었는데 평균 연령은 45세, 23명 중 여성은 5명, 평균 통근 년수는 3년 2개월로 나타났다.¹⁾ 그는 가족형태를 해외와 한국에서 2개의 가정을 운영하는 기러기 부부(lonely wild goose)와 국내에서 최소한 한 달에 2회 이상 주말에 만나는 부부로 구분한 후 후자를 주말부부로 간주하였다. 그는 기러기 부부와 국내 주말 부부가 형성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서 주로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는 형태이며 주말부부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녀교육이라고 하였다. 한편, 부인의 직업에 대한 자아충족 역시 주말부부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으며, 점점 편리해져 가는 교통수단이 주말부부의 형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철(2001)을 주말부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지금의 주말부부 형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있으므로 주말부부를 가족해체의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족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행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말부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나 다양한 가족형태별로 가계경제구조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배미경

(2001)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근로 소득자와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비율분석을 비교하였고, 양세정(1993, 1997, 1998), 허경옥(2001)은 맞벌이 가계와 전업주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등 가계경제구조를 비교하였다. 최현자, 성영애(2000) 그리고 최현자(2001)는 부채가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양세정, 성영애(2001)는 노인가계와 비노인 가계의 경제구조를, 정순희, 김현정(2002)은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경제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윤금, 양세정(1999), 정순희, 문숙재(1997)는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경제적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비록 주말부부 가계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계경제 구조를 분석했으므로 본 연구 수행에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주말부부의 가계경제구조 파악,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와의 가계경제구조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득구조, 가계부채, 저축과 지출, 가계자산 등 가계의 객관적 경제구조에 대해 주말부부 가계인가 비주말부부 가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2>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 수준을 분석하고 이것이 주말부부 가계인가 비주말부부 가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3> 가계가 주말부부 가계에 속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주말부부 가계의 경제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비주말부부 가계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므로 대표성 있는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9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조사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가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총 4,509가구이며 조사대상 가구의 구성원 중 성인들은 모두 개인별 조사 대상으로 총 12,042명이었다. 조사대상 가계 선정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확률통계 표집 방법인 무작위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가 아닌 상

1) 김성철(2001) 연구에서 평균값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자가 김성철(2001)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계산하였음.

태에서 주중에 동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를 주말부부로 간주하였다. 이때, 질병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닌 직업상의 이유로 주중에 동거하지 않는 경우(해외거주 제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대주가 직업을 갖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가계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대상 가계는 총 3,164가계로 이중 주말부부 가계는 3%인 94가계로 나타났고 나머지 97%인 3,070가계는 비주말부부 가계로 구분되었다.

3. 조사도구 및 척도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 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주말부부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의 직업 관련 특성, 가계소득, 지출, 저축, 부채 등 경제적 구조와 관련한 특성, 주관적 경제적 복지 관련 특성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 건강에 대한 질문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어려움은 이들 지출항목에 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닌지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직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인지의 여부 변수는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가계의 재정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의 부채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채은석, 성영애(2000), Prather(1990)가 제안한 5개 기준,²⁾ Devaney(1994),³⁾ Lytton, Garman, Porter(1991), Garman, Fogue(1994), 배미경(2001) 등이 제시한 기준을 감안하여 가계 부채부담의 측정방법 중 하나인 월 평균 부채상환액 변수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Versio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득, 가계부채, 지출, 주관적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였고 주말부부가계인가 비주말부부 가계인가에 따라 이 특성들이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한편,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한편, 가계가 주말부부 가

계에 속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Logistic) 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한 후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진 경우 그 변수의 1 단위 변화에 따른 주말부부 가계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 3,164가계 중 주말부부 가계는 3%인 94가계, 비주말부부 가계는 나머지 97%인 3,070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또 그

<표 1> 가계의 일반적 특성

변수	주말부부 가계 빈도수 (%)	비주말부부 가계 빈도수 (%)	카이(χ^2)값
주말부부 여부	94 (3.0)	3070 (97.0)	59.72***
남편 교육 고졸이하 대출 대학원이상	38 (42.2) 40 (44.5) 12 (13.3)	2024 (77.8) 602 (22.2) 80 (3.0)	59.73***
부인 교육 고졸이하 초대출 대학원이상	55 (61.1) 35 (38.9) 0 (0.0)	2346 (86.3) 356 (13.1) 17 (0.6)	48.67***
남편 연령 30세 31-40 41-50 51세 이상 평균(S.D.)	5 (5.6) 30 (33.3) 30 (33.3) 25 (27.8) 43.3 (9.3)	69 (2.5) 795 (29.2) 904 (33.2) 953 (35.0) 46.1 (10.8)	12.37**
부인 연령 30세 31-40 41-50 51세 이상 평균(S.D.)	13 (14.4) 31 (34.4) 29 (32.2) 17 (18.9) 40.50 (8.8)	234 (8.6) 951 (35.0) 855 (31.4) 681 (25.4) 42.65 (10.3)	8.80*
학령기 자녀수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평균(S.D.)	49 (54.4) 20 (22.2) 20 (22.2) 1 (1.1) .76 (.8)	1389 (51.0) 597 (21.0) 669 (24.6) 66 (2.4) .78 (.9)	1.03
자녀 수 없음 1명 2명 3명이상 평균(S.D.)	7 (7.8) 18 (20.0) 51 (56.7) 14 (15.5) 1.77 (.8)	240 (8.8) 612 (22.5) 1474 (54.2) 395 (14.5) 1.76 (.8)	2.76
주거지 대도시 농촌	63 (72.4) 24 (27.6)	2033 (76.5) 625 (23.5)	0.77
특성	주말부부 가계 평균값 (S.D.)	비주말부부 가계 평균값 (S.D.)	t 값
남편건강	1.88 (.73)	2.19 (.89)	3.97***
부인건강	1.91 (.70)	2.24 (.89)	4.35***

* p < .05 ** p < .01 *** p < .001

2) 5개 기준은 월평균지출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총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미담보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단기부채와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자산의 순가치와 유형자산의 합에서 주택의 가치를 제외한 것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산순가치+유형자산-주택가치/순자산)이다.
3) 3개 기준은 유용성,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자산/부채), 가처분소득에 대한 연간 총부채상환액 비중(연간 총부채상환액/가처분 소득)이다.

특성상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과 연령, 그리고 부부의 건강 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가족 여부나 학령기 자녀 수, 자녀 수, 주거지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남편의 절반(58%) 이상이 대졸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주말부부의 경우 25%만이 대졸인 것으로 밝혀졌고, 주말부부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경우 부인의 40%가, 비주말부부의 경우 14%만이 대졸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만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부부의 평균 연령이 비주말부부 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평균 자녀수와 학령기 자녀(만 7세에서 18세)의 수는 두 가계에서 모두 1.7명과 0.7명이었다. 건강에 있어서는 주말부부가 비주말부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계의 취업 관련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먼저 부인의 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전체 주말부부 가계 중 32%가,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29%가 맞벌이 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통해 주말부부

<표 2> 가계의 취업 관련 특성

변 수	주말부부가계 (n=94) 평균 (S.D)	비주말부부가계 (n=3,070) 평균 (S.D)	t 값
남편 근로시간 (주당 시간)	50.22 (19.01)	56.67 (21.36)	2.54*
부인 근로시간 (주당 시간)	46.91 (21.02)	53.65 (23.48)	1.91*
변 수	주말부부 가계 빈도수 (%)	비주말부부 가계 빈도수 (%)	카이(χ²)값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 (32.2)	813 (29.9)	0.22
비맞벌이	61 (67.8)	1908 (70.1)	
남편 사회적지위			18.97***
매우 낮음	9 (10)	124 (4.5)	
낮음	44 (48.9)	907 (33.5)	
높음	28 (31.1)	1118 (41.2)	
매우 높음	9 (10.0)	562 (20.7)	
부인 사회적지위			30.84***
매우 낮음	8 (8.9)	95 (3.5)	
낮음	51 (56.7)	928 (34.2)	
높음	21 (23.3)	1119 (41.3)	
매우 높음	10 (11.1)	570 (21.0)	
남편직장유지의사			0.33
없음	7 (8.4)	160 (6.8)	
있음	76 (91.6)	2193 (93.2)	
부인직장유지의사			0.44
없음	3 (6.7)	125 (9.6)	
있음	42 (93.3)	1174 (90.4)	
남편 직장근무			8.22***
3년 미만	61 (84.7)	960 (68.8)	
3년 이상	11 (15.3)	436 (31.2)	
부인 직장근무			14.15***
3년 미만	27 (75.0)	289 (43.0)	
3년 이상	9 (25.0)	383 (57.0)	

* p < .05 ** p < .01 *** p < .001

가 형성되는 것이 부인의 취업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근로시간, 사회적 지위, 근무 년 수 등에 있어서는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부 가계에서 부인과 남편의 근로소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부부가계 부부의 근로시간은 비주말부부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통근이나 주말에 가족들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시간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직장 근무 년 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주말부부가계의 부부보다는 비주말부부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들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므로 동거하지 않는가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 년 수 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계의 소득구조 분석 및 차이 검증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득구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주말부부 가계의 한달 평균 총 가계 근로소득은 208만원으로서 비주말부부 가계의 177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남편과 부인의 근로소득도 주말부부 가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남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75만원, 부인은 108만원인데 반해,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각각 142만원, 7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부인과 남편의 소득수준은 주말부부가 형성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주말부부 가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근로 소득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가계와 있는 가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조사·분석한 결과 이자, 주식이익, 배당의 총 합산인 금융소득과 은행, 제 2 금융권, 주식계좌에 대한 금융자산이 있는 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금융소득과 금융자산은 주말부부가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대료 및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측정된 부동산 소득에 있어서는 비주말부부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부가계의 연간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자산은 각각 2,938 만원, 4,547 만원, 4,443 만원으로,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는 각각 1,939만원, 6,514만원, 4,00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유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9,975만원,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1억 4,277만원으로 이 두 가계간에 부동산 자산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가계소득 특성 및 차이 검증

(단위 : 만원)

변 수	주말부부 가계		비주말부부 가계		t 값
	빈도수(%)	평균 (S.D.)	빈도수(%)	평균 (S.D.)	
총가계근로소득	90 (3.2)	208.1 (96.4)	2721 (96.8)	177.4 (122.2)	-2.36**
남편근로소득*	72 (4.9)	174.6 (65.9)	1383 (95.1)	141.6 (67.8)	-5.00***
부인근로소득*	36 (5.1)	108.3 (50.7)	667 (94.9)	75.7 (47.1)	-3.77***
금융소득 전체	90 (100.0)	3.0 (14.8)	2720 (100.0)	6.0 (176.4)	.16
없음(=0)	81 (90.0)	-----	1206 (44.3)	-----	-----
있음(>0)	9 (10.0)	2938.4 (5811.0)	1514 (55.7)	1939.5 (4716.2)	-743.27***
부동산소득 전체	90 (100.0)	5.1 (24.3)	2720 (100.0)	4.1 (39.4)	-.24
없음(=0)	75 (83.3)	-----	2566 (94.3)	-----	-----
있음(>0)	15 (16.7)	4547.6 (8152.8)	154 (5.7)	6514.3 (15017.6)	1962.39***
이전소득 전체	90 (100.0)	1.6 (6.7)	2716 (100.0)	1.6 (15.6)	-.02
없음(=0)	78 (86.7)	-----	2386 (87.8)	-----	-----
있음(>0)	12 (13.3)	12.2 (14.8)	330 (12.2)	13.2 (43.1)	.96
총비근로소득 전체	90 (100.0)	9.8 (28.3)	2712 (100.0)	11.8 (182.5)	.10
없음(=0)	61 (67.8)	-----	2090 (77.1)	-----	-----
있음(>0)	29 (32.2)	30.5 (43.4)	622 (22.9)	51.4 (378.7)	.29
금융자산 전체	90 (100.0)	2119.8 (5103.3)	2694 (100.0)	1424.0 (4707.9)	-1.38
없음(=0)	35 (38.9)	-----	1184 (43.9)	-----	-----
있음(>0)	55 (61.1)	4443.8 (6435.0)	1510 (56.1)	4007.5 (11341.2)	-436.37***
부동산 자산 전체	69 (100.0)	1156.5 (4358.6)	2303 (100.0)	1122.1 (7161.9)	-.04
없음(=0)	61 (88.4)	-----	2122 (92.1)	-----	-----
있음(>0)	8 (11.6)	9975.0 (9166.20)	181 (7.9)	14277.9 (21637.9)	.55
총 자산 전체	69 (100.0)	2769.3 (5502.9)	2281 (100.0)	2368.3 (8837.1)	-.37
없음(=0)	26 (37.7)	-----	933 (40.9)	-----	-----
있음(>0)	43 (62.3)	4443.8 (6435.0)	1348 (59.1)	4007.5 (11341.2)	-.2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가 표시된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조사대상자들만의 평균값

참고: 금융소득=이자+주식이익+배당, 부동산 소득=임대료+부동산매매차익, 이전소득=정부보조+친척보조

참고: 총비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이전소득, 총자산=금융자산+부동산자산

3. 가계부채 및 지출 구조 분석 및 차이 검증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부채상황 및 저축, 생활비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두 가계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효과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부채 및 저축 등이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주말부부 가계에서의 부채 및 부채상환액은 비주말부부 가계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축 액과 생활비는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말부부 가계의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간의 부채를 합한 총 부채액 수는 2,026만원으로 비주말부부 가계의 3,245만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달 평균 부채상환액 수에서는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33만원으로 41만원을 갚고 있는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최현자, 성영애(2000)는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표8>에 제시한 바와 같이 1996년 도시가계 전체의 평균 부채액은 823만원, 부채가구 만의 평균 부채액은 1,668만원, 월 평균 가계소득 중 월 평균 부채상환액의 비

중은 9.8%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저축액수에 있어서 주말부부 가계는 한달 평균 67만원으로 비주말부부 가계의 58만원보다 약 10만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의 경우 주말부부 가계가 144만원으로 비주말부부 가계의 124만원보다 20만원이나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동거하지 않고 2개 지역에서 2집 살림을 하는데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결국,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비주말부부 가계와 비교할 때, 생활비가 많이 들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많은 가계소득으로 인해 저축액 수가 많으며 부채가 적으므로 주말부부를 유지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세정(1997)은 통계청 1994년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 가계의 저축액수는 94만원, 전업주부가계의 경우 78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계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두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양세정(1997) 자료의 조사시점 1994년에 비해 본 연구의 조사시점인 1999년에 가계저축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과거에 비해 우리 나라 가계의 저축액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부합되고 있다.

<표 4> 가계부채/저축 특성 및 차이 검증

(단위 : 만원)

변 수	주말부부 가계		비주말부부 가계		t 값
	빈도수(%)	평균 (S.D.)	빈도수(%)	평균 (S.D.)	
금융기관 부채					
전체	89 (100.0)	900.0 (1413.7)	2717 (100.0)	1239.5 (3806.3)	.84
없음(=0)	47 (52.8)	-----	1634 (60.1)	-----	-----
있음(>0)	42 (47.2)	1907.1 (1523.8)	1083 (39.9)	3109.8 (5526.8)	1202.65***
비금융기관 부채					
전체	90 (100.0)	38.3 (153.9)	2721 (100.0)	54.2 (447.6)	.34
없음(=0)	83 (92.2)	-----	2623 (96.4)	-----	-----
있음(>0)	7 (7.8)	492.8 (300.5)	98 (3.6)	1507.3 (1845.3)	1014.49***
개인 부채(타인 빚)					
전체	90 (100.0)	130.0 (782.3)	2719 (100.0)	190.6 (987.4)	.58
없음(=0)	85 (94.4)	-----	2432 (89.4)	-----	-----
있음(>0)	5 (5.6)	2340.0 (2674.5)	287 (10.6)	1806.5 (2517.2)	-533.45***
총부채					
전체	89 (100.0)	1070.2 (1827.7)	2717 (100.0)	1484.7 (4078.7)	.96
없음(=0)	42 (47.2)	-----	1474 (54.3)	-----	-----
있음(>0)	47 (52.8)	2026.6 (2100.0)	1243 (45.7)	3245.4 (5537.2)	1218.87***
월평균 부채상환액					
전체	87 (100.0)	15.62 (27.56)	2687 (100.0)	16.03 (53.8)	.13
없음(=0)	46 (52.9)	-----	1643 (61.1)	-----	-----
있음(>0)	41 (47.1)	33.1 (32.2)	1044 (38.9)	41.2 (80.1)	8.14***
저축액					
전체	90 (100.0)	47.6 (54.7)	2713 (100.0)	34.1 (57.3)	-2.18*
없음(=0)	63 (70.0)	-----	1101 (40.6)	-----	-----
있음(>0)	27 (30.0)	66.6 (54.1)	1612 (59.4)	57.5 (64.7)	-9.10***
생활비*	89 (3.1)	144.5 (75.2)	2717 (96.9)	124.3 (68.5)	-2.74***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총부채=금융기관 부채+비금융기관 부채+개인 부채

4. 가계의 재정구조 분석 및 차이 검증

가계의 재정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득 중 소비지출의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을 조사한 결과 <표 5>에 제시한 바와

<표 5> 가계재정 특성 및 차이 검증

특성	주말부부 가계(n=88)	비주말부부 가계(n=2,716)	평균값 차이	t 값
	평균 (S.D.)	평균 (S.D.)		
평균소비성향	.78 (.05)	.81 (.08)	-.03	-.53
평균저축성향	.22 (.05)	.19 (.04)	0.03	0.53
가계소득 중 부채비율 (월평균, 전체 가계)	.09 (.15)	.10 (.33)	18.95	.08
부채가 있는 가계의 가계소득 중 부채 상환 액수 비중	빈도 수(%)	빈도 수(%)		카이(χ ²) 값
9% 이하	18 (43.9)	360 (34.4)		3.07
10-19	6 (14.6)	268 (25.6)		
20-29	7 (17.0)	172 (16.4)		
30 이상	10 (24.3)	244 (23.3)		
계	41 (100.0)	1044 (100.0)		
소득 중 부채 상환 액수 비중 평균 (S.D.)	0.19(0.17)	0.25(0.49)		
한계소비성향	.49	.30		
소득탄력성	.59	.55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자산=부동산자산+금융자산

부채=금융기관 부채+비금융기관 부채+개인 부채

참고: 자산중 부채비율의 경우 자산이 없는 가계 및 부채가 없는 가계가 포함됨

같이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78%,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81%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저축성향은 주말부부가계의 경우 22%로 전체 가계 소득 중 22%를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19%임을 알 수 있다.

<표 6>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 수	주말부부 가계 (n=88)	비주말부부 가계 (n=2,716)
log(남편 연령)	61.67*	39.60***
자녀 수	7.16	15.49***
남편 교육	11.84	20.68***
부인 취업 여부	4.66	-.83
가계 근로소득	.49***	.30***
주거(대도시=1)	11.52	12.54***
상수항	-230.73*	-141.94***
R ²	.53	.45
adjusted R ²	.49	.45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가계의 소득탄력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주말부부 가계 (n=88)	비주말부부 가계 (n=2,716)
log(남편 연령)	.61**	.30***
자녀 수	.05	.11***
남편 교육	.07	.10***
부인 취업 여부	.12	-.007
주거(대도시=1)	.09	.09***
log(가계 총 근로소득)	.59***	.55***
상수항	-.83	.40**
R ²	.51	.53
adjusted R ²	.47	.52

* p < .05 ** p < .01 *** p < .001

주말부부와 관련한 연구는 아니나 <표 8>에 요약한 바와 같이 양세정(1997)은 통계청 1994년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취업주부 가계와 전업주부 가계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였다. 취업주부 가계의 총 가계소득은 195만원, 전업주부가계의 경우 154만원이며 평균소비성향은 각각 0.65와 0.7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 가계의 소비성향은 높아지고 있고 저축성향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현자(2001)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에서 통계청의 1999년 자료를 사용하여 부채가 있는 가계와 없는 가계로 구분하여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채부담이 없는 가계의 가계소득은 182만원, 부채부담이 있는 가계는 229만원, 소비지출액은 127만원과 157만원, 평균소비성향은 0.77과 0.78, 평균 저축성향은 0.22, 0.05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비율은 각각 9%, 10%로 조사되어 가계소득 중 약 10% 정도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영애, 양세정(1995)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8 참조) 전체 가계의 부채 부담율은 13%. 부채를 보유한 가계만의 부채부담은 약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무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채상환선인 부채부담률 20%를 넘는 가계는 전체 조사대상의 17%, 부채부담률이 50%가 넘는 가계도 약 7%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영애(1996)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통계청이 제공하는 「도시가계연보」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 가계의 가계부채부담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의 10-13%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음을 밝혔다. 이때, 도시 가계의 30-4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채보유 가계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의 25-39%정도가 부채상환에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할 때, 본 연구 조사대상 가계의 한달 평균 소득 중 부채상환 액수의 비중이 9%와 10%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채가 있는 가계는 전체가계의 52%와 46%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

와 대체로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부채가 있어 매월 부채상환을 하고 있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표 5와 8 참조)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평균 부채 부담율은 19%,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25%로 나타났고, 주말부부 가계의 59%, 비주말부부 가계의 60%가 부채상환선인 20% 미만의 부채부담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가계 모두 부채가 있는 가계의 대략 1/3 정도는 부채 상환선 20%를 넘는 부채부담을 갖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최현자(2001)는 가계부채부담의 상환선을 조사한 바 우리 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선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부채부담 25% 수준이 상환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현자(2001)는 부채부담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가처분소득으로 부채상환과 소비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가계가 되어 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최현자(2001)의 주장과 연결시켜 보면 본 연구 조사대상 가계 중 부채가 있는 가계의 40% 정도는 부채부담을 심각하게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현자(2001)는 통계청의 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우리 나라 전체 가계의 83%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체 가계의 7.3%는 부채부담률이 40%를 넘고 있어 현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지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주말부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49,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는 0.30으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주말부부 가계에서 가계소득이 변화할 경우 소비지출의 변화 가능성이 비주말부부 가계에서의 가능성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⁴⁾

한편, 소득이 1% 변화할 때 소비지출액이 몇 % 변화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소득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주말부부 가계의 소득탄력성은 0.59,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는 0.55로 측정되었다.⁵⁾ 이 결과를 통해 주말부부 가계에서의 소득탄력성이 비주말부부 가계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어떤 소비지출항목에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사치재, 1보다 적은 경우 필수재로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총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소득이 1% 증가한다면 지출액이 0.59%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소득변화에 따른 총 소비지출액수가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

4) 본 연구에서는 한계소비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표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남편의 연령, 자녀 수, 부인의 취업 여부, 남편 교육, 주거지역 등은 한계소비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의 선정은 양세정(1991), Horton & Hafstrom(1985) 등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5) 본 연구에서 소득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한계소비성향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8> 선행연구별 가계경제구조 비교

특성	선행연구	본 연구		양세정(1997)		최현자(2001)		최현자, 성영애(2000)
		주말부부	비주말부부	취업주부	전업주부	부채가계	부채없는가계	
가계소득(만원)		208.1	177.4	195.3	154.7	229.3	182.2	
총 소비지출액(만원)		144	124	117.1	107.8	157	127	
평균 소비성향		.78	.81	0.65	0.77	.78	.77	
저축액 수(만원)		67	58	94	78			
평균 저축성향		.22	.19			.04	.23	
부채액 수(만원)		2026	3245					823 (부채가계만 1668)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액수(비율)		33(9%)	41(10%)			17.05%	(전체=14.1%)	9.8%
부채가계만의 부채상환비율		19%	25%					
한계소비성향		.49	.30					
소득탄력성		.59	.55					

참고 : 최현자, 성영애(2000)은 1996년 통계청 자료, 최현자 (2001)은 1999년 통계청 자료

다. 다시 말해, 소득이 감소하면 주말부부 가계에서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대폭 지출을 줄일 것(즉, 탄력적)이라는 의미이다.

Horton과 Hafstrom(1985)는 미국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을 측정된 결과 0.51, 0.53으로 나타났으며, 문숙재와 정순희(1997)는 한국의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득탄력성을 소비지출 항목별로 측정된 결과 식비의 경우 0.31, 0.92, 외식비 1.32, 0.96, 주거비 1.33, 1.46, 교육비 2.90, 0.75 등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 가계와 미국가계의 소득탄력성은 거의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⁶⁾

5. 가계의 주관적 경제복지 분석 및 차이 검증

주말부부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주관적 차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주말부부가계에서 부인과 남편의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사회적 수준에 대한 평가 수준이 비주말부부 가계에서의 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계근로소득, 저축 액, 부채 등 객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는 주말부부 가계가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이었으나, 건강, 주관적 경제평가 및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는 비주말부부 가계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비지출 항목별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항목에서는 재무 상의 어려움에서 주말부부보다 비주말부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정순희(1997) 연구는 총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 측정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하기 어려움.

<표 9> 주관적 경제복지 특성 및 차이 검증

변수	주말부부가계 (n=94)	비주말부부가계 (n=3,070)	평균 값 차이	T 값
	평균 (S.D.)	평균 (S.D.)		
가계경제 평가	3.54 (.80)	3.82 (.81)	.27	3.15***
남편의 평가	3.54 (.82)	3.84 (.80)	.29	3.41***
부인의 평가				
사회적 지위 평가	3.41 (.81)	3.77 (.84)	.36	4.03***
남편의 평가	3.37 (.80)	3.79 (.82)	.42	4.80***
부인의 평가				
미래 가계경제 예상	3.21 (.81)	3.06 (.81)	-.16	-1.780
남편의 예상	3.31 (.71)	3.04 (.81)	-.27	-3.478***
부인의 예상				
식비 어려움	.00 (.00)	.02 (.14)	-.02	1.75
교육 어려움	.14 (.35)	.16 (.36)	-.02	.12
재무 어려움	.14 (.35)	.22 (.41)	-.08	2.86*
의료 어려움	.04 (.21)	.06 (.23)	-.02	.19
주거 어려움	.10 (.30)	.09 (.29)	.01	.03

* p < .05 ** p < .01 *** p < .001

참고: 식비 어려움 등 5개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어려움은 가변수로 측정하였음

7. 주말부부 여부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가 주말부부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조사대상 가계가 주말부부가계일 것인지 아닐 것 인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분석(logis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은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chi-square=52.32, P<.001) 하며, 총 사례 중 95%를 정확하게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LL의 유의도(520.74)가 높아 모델의 적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계가 주말부부 가계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비주말부부 가계에 속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직장 년 수,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직장을 갖게 된 재직 년 수가 짧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말부부 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김성철(2001)의 주말부부 사례조사 결과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연구 조사 대상은 대학교수, 고급공무원, 기업 관리자, 연구원 등 교육수준이 높은 남편들로써 평균 통근기간이 3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주말부부 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의 취업이 주말부부 형성에 원인이 된다는 그 동안의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부인의 취업여부는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남편의 직장년 수와 교육수준의 한계효과를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남편의 직장 재직 년 수가 1년 적을수록 주말부부가계가 될 확률은 2% 높아지며, 남편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 경우 주말부부가 될 가능성은 3%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 주말부부여부 결정 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

독립변수	계수(Coeff)	표준오차(S.E.)	Exp(B)	$\partial P / \partial X$
남편 연령	.02	.01	1.02	.0005
남편 직장년 수	-.71*	.35	.49	-.0245
학령기 자녀 수	-.09	.25	.92	-.0030
남편 교육	.93***	.21	2.54	.0323
부인 취업	.21	.29	1.24	.0073
남편 사회적 지위	-.21	.19	.81	-.0072
가계 총 근로소득	-.001	.001	1.00	-.00003
constant	-1.31	1.36	.27	
-2 Log likelihood (significance)	520.74***			.000
Model Chi-Square	52.32***			
% correctly	95%			
N	2,96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소득, 지출, 부채 등 객관적인 경제수준과 주관적 경제수준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높으며, 주말부부의 연령이 낮으며, 건강이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취업과 관련한 특성에서 주말부부의 근로시간이 비주말부부 가계의 부부보다 짧으며,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직장 근무 년 수가 길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주말부부 가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부부의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만큼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소득과 금융자산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소득은 비주말부부 가계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해 주말부부의 경우 가계소득 등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건강이나 심리적 차원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낮아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저축 액이 많고, 생활비는 많이 들며, 부채액 수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달 평균 가계소득 중 부채상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두 가계에서 약 10%정도로 나타났으며, 부채가 있는 가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 중 평균 부채 부담율은 19%, 비주말부부 가계의 경우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2/3는 부채 위험 상한선인 20%미만, 1/3은 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경우 커다란 차이 없이 약 0.55, 0.59로 조사되었다.

셋째, 소득, 저축, 자산 등의 측면에서 주말부부 가계가 유리하였으나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말부부가계에서 미래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부인의 평가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가 주말부부 가계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비주말부부 가계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남편의 직장 년 수,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직장을 갖게 된 년 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말부부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부인의 취업은 주말부부가 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주말부부 가계는 객관적 차원의 가계 경제 측면에서는 혜택이 있으나 건강, 가계경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에서는 부정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말부부의 부정적 측면, 예를 들면 건강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즉 주말부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주말부부 교사들을 위한 전근이나 각종 정책, 기업의 주말부부 가계를 위한 인력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주말부부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효과를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말부부의 경우 반복적인 교통수단이용에 대해 혜택을 주거나, 특별 주택이나 거주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 육아 지원 정책 등이 개발될 수 있다.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을 사장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말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부정책은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적 측면의 경제 만족도 및 건강 등도 객관적 측면의 경제 만족도 못지 않게 삶의 복지 증진에 중요하므로 주말부부들의 정서적 문제나 건강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주말부부들이 상호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동호회나 인터

넷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주말부부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서비스 사업이나 일명 '기러기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말부부가 건강 및 주관적 경제복지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전화나 이동통신, 교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주말부부들이 비주말부부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특별한 마케팅 전략(예: 마일리지 제공, 사은품)을 세울 수 있다. 주말부부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이들이 충성고객이 될 수 있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 대학가, 연구소 주변이나 주말부부들이 많이 모이는 기차역, 터미널, 전철역 등에 오피스텔, 식당, 세탁, 가사지원 서비스, 탁아 및 보살핌 서비스, 스포츠 및 취미활동 관련 사업, 건강유지 보조 서비스, 부재시 동물 봐 주기 등 주말부부들의 삶에 필요한, 즉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주말부부 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주말부부 가계보다 유리하며, 또한 미래 가계의 경제적 예상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말부부가 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으며, 가족이 해체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말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말부부가 하나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주말부부를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족복지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주말부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지고 주말부부형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주말부부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이들 부부의 삶의 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제도적 지원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 가계경제 및 소비자학 관련 분야에서 주말부부 가계와 관련한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국적 자료를 가지고 주말부부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비주말부부 가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주말부부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해 소비지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주말부부 가계의 표본 크기가 크지 않아 주말부부의 주거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여성취업 증가, 자녀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주말부부 형성의 용이함, 교통 편의성 가속화 등으로 앞으로도 주말부부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말부부와 관련한 가계경제학이나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 접수 일 : 2002년 12월 24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3월 31일

【참 고 문 헌】

- 김용희, 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1-27.
- 김재경,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박미석 (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 배미경 (2001). 재무비율분석을 이용한 가계 재정상태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9(9), 49-61.
- 성영애, 양세정 (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성영애 (1996). 도시 근로자가계의 부채부담추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83-194.
- 양명숙, 하경란(1997). 모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01-313.
- 양세정 (1991).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8, 54-67.
- 양세정 (1993). 주부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양세정 (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65-182.
- 양세정, 성영애 (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이윤금, 양세정 (1999). 양부모가계와 편모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비교. *소비자학연구*, 10(4), 93-108.
-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 (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17-132.
- 정순희, 김현정(2002).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13-122.
- 최현자 (1996). 가계의 신규 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최현자, 성영애 (2000).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93-207.
- 최현자, 성영애 (2001). 가계의 부채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235-252.
- 최현자 (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 채은석, 성영애 (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 요인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허경옥 (2001).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의 기여도 조사분석. *소비문화연구*, 4(1), 45-66.
- Devaney, S. (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Garman, E. T., & Fogue, R. E. (1994). *Personal Financ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orton, S.W., & Hafstrom, J. L. (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nsumpti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3, 292-303.

Joung, S. & Moon, S. (1997). Expenditure patterns of divorced single-mother families and two-parent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8, 147-162.

Kim (2001). Weekend couples among Korean professionals: An Ethnography of living apart on weekdays. *Korea Journal*, 41(4), 28-47.

Lytton, R. H., & Garman, E. T., &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